Strategy Idea

AI H/W 관점에서 본 SaaSpocalypse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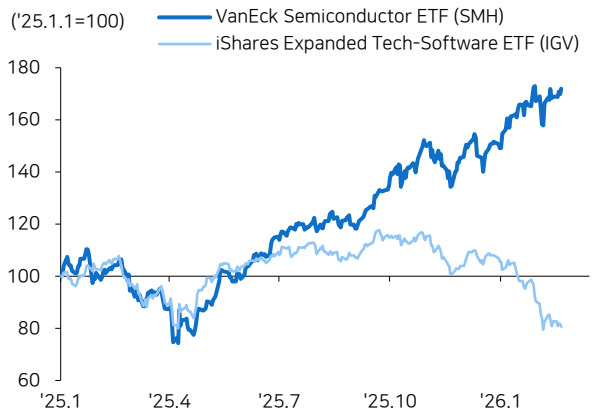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 ✓ SaaSpocalypse: Claude Cowork 모먼트는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유용성을 공감한 계기
- ✓ Claude와 대척점에 있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OpenClaw. 최근 개발자가 OpenAI 합류
- ✓ OpenAI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 개발 박차 + OpenClaw는 안정성, 접근성 개선 기대
- ✓ OpenAI, Anthropic, Google AI 에이전트 경쟁 심화 예상, 경쟁은 기술 진보/확산 가속 요인
- ✓ OpenClaw로 Mac '고메모리 모델' 차별적 쇼티지. AI 에이전트 확산 가속 → 메모리 추가 수요
- ✓ 에이전트도 생성형 AI와 마찬가지로 초기 선점 중요, AI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프라 확보가 관건
- ✓ AI 에이전트 재조명 시 메모리 추가 눈높이 상향 가능성. 그 외에서는 엔비디아, 알파벳 대안

Claude Cowork 모먼트의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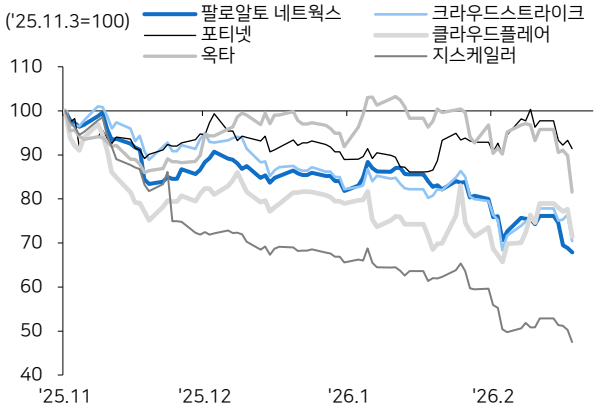
2월 초 AI 에이전트 Claude Cowork 공개 이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약세를 유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붕괴라고 하기보다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유용성을 확인한 계기로 해석한다. 2월 6일자 코멘트처럼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게 비즈니스가 대체되는 현상을 보고 AI 산업 전체가 버블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된다는 시각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AI 에이전트 경쟁 구도를 점검하고 AI 하드웨어 시장의 시사점을 고민했다. 결론은 AI 에이전트 상용화가 앞당겨짐에 따른 메모리 수요의 추가 눈높이 상향 가능성이다.

그림1 작년 7월 이후 AI H/W와 차별화된 S/W 부진 지속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사이버 보안 기업까지 AI 에이전트에 대체 우려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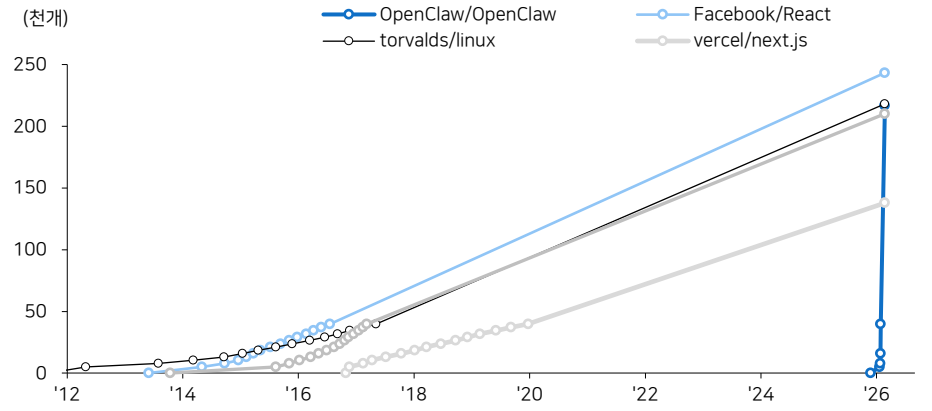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laude Cowork 이전부터 개발자 사이 최대 관심사였던 'OpenClaw'

Claude Cowork 이전 IT 개발자 사이에서 먼저 화제였던 '행동하는 소프트웨어'는 OpenClaw였다. OpenClaw는 단순 질의응답이 아닌 PC, 브라우저, 메시징, 업무 툴을 실제 조작하는 오픈소스 에이전트 모델이다. OpenClaw는 Github 유저들의 Star(즐겨찾기) 저장 수가 한 주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이 확산 속도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오픈소스를 넘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인식했음을 시사하며 대중형 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대화가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는, 로컬에서 실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된 점이 바이럴의 본질이다. 여기에 기능이 고정된 제품이라기보다 스킬 패키지로 기능을 계속 붙이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 구조가 개발자 참여를 폭발시키고 사용 사례를 빠르게 늘리며, 표준을 만들려는 경쟁을 촉발했다. 실제 PC/계정에 붙어 사용자 고유의 워크플로우를 알고 실행하는 방향이 사용 욕구를 키웠다.

그림3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확산 속도: GitHub 유저들의 'OpenClaw' Star 저장 수 급등**



주: GitHub의 Star는 즐겨찾기 횟수로 해당 저장소의 인기, 품질, 영향력을 대변
자료: Star-Histor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OpenClaw와 Claude Cowork의 개념 비교**

구분	OpenClaw	Claude Cowork
한 줄 정의	사용자가 필요 기능을 자유롭게 구현해 직접 구동하는 개인 비서	Claude 데스크톱 위에서 폴더를 잡고 일하는 업무 파트너
운영 주체	Peter Steinberger 창시, 독립 오픈소스 재단 형태로 전환	Anthropic의 Claude 앱 기능 중 하나
실행 위치	PC/서버 등 개인 장비에서 시행	개인 데스크톱 폴더에 접근해 읽기/편집/생성 작업 수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텔레그램/왓츠앱/디스코드 등 메신저/채팅앱 인박스 중심	Claude 데스크톱의 Cowork 화면에서 폴더 지정 후 작업
핵심 철학	항상 켜져 있고,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일을 한 곳에서 처리	파일이 있는 곳에서 여러 단계 작업을 계획-시행-산출
외부 서비스 연결 방식	도구 연동으로 기능 확장. 모델(ChatGPT, Gemini)과 연동 가능	Claude in Chrome 등 공식 제품 기능 중심으로 결합
사용자 책임	설치/운영/업데이트/권한/보안 설정을 사용자가 더 많이 책임	앱이 제공하는 틀안에서 활용, 폴더/커넥터 접근을 사용자가 정의
자유도	자유도가 높은 만큼 책임도 큼	지정한 폴더 내에서 통제. 자유도는 제품 범위 내
보안/리스크	예측 불가+설정 잘못하면 위험	통제된 UX
업데이트/프로젝트 상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재단 형태로 지속 지원	연구 프리뷰로 빠르게 개선, 최근 윈도우/유로 플랜 확대
기업 내 사용 난이도	일부 기업에서 사내 사용 제한/경고 나오는 등 리스크 관리 쟁점	Team/Enterprise까지 연구 프리뷰로 확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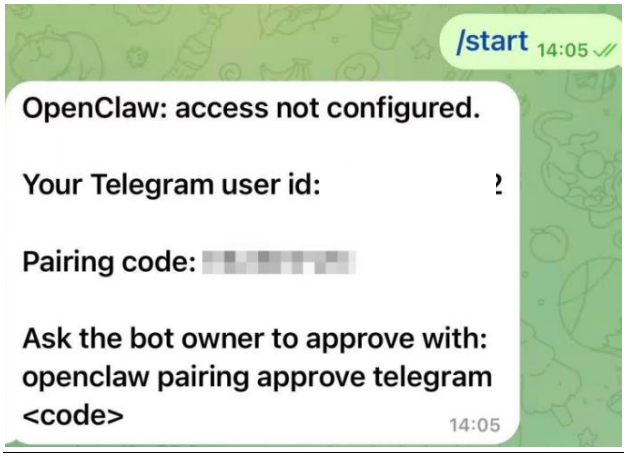
OpenClaw의 프론티어 경쟁 선결조건: 접근성, 안정성/보안 문제 해결 여부

로컬 PC에서 상시 구동 가능하다는 매력에,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채팅 앱과 연동해 어디서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인터페이스도 장점이었다. Claude Cowork도 사용자에게 익숙한 AI 브라우저 위에서 구동되는 장점을 지녔으나, 오픈소스에 사용자 편의대로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유도에서 차별점이 있다.

다만 OpenClaw가 IT 개발자 세계 밖에서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접근성 문제가 커 보인다. 코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acOS, 리눅스에서 구동이 되며 Windows에서는 WSL2(리눅스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개발자는 애초에 OpenClaw를 세팅하는 것부터 진입장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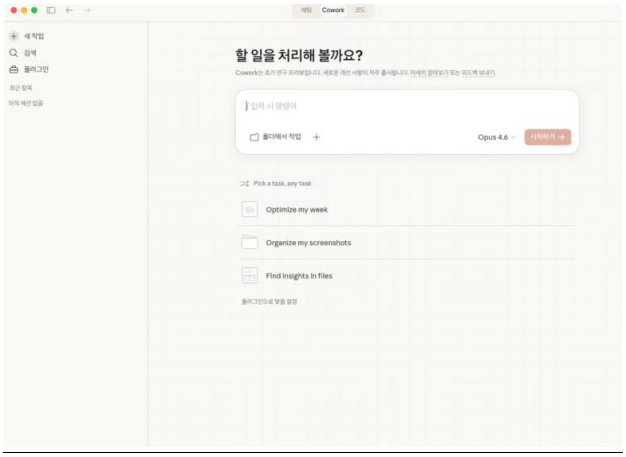
확산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안정성/보안 문제도 크다. 웹/문서의 숨은 지시가 에이전트를 속여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에이전트의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API 키 등이 유출되면 계정 장악과 2차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점 때문에 국내외 IT 기업들은 최근 OpenClaw의 사용을 제한했다.

그림4 OpenClaw의 텔레그램 연동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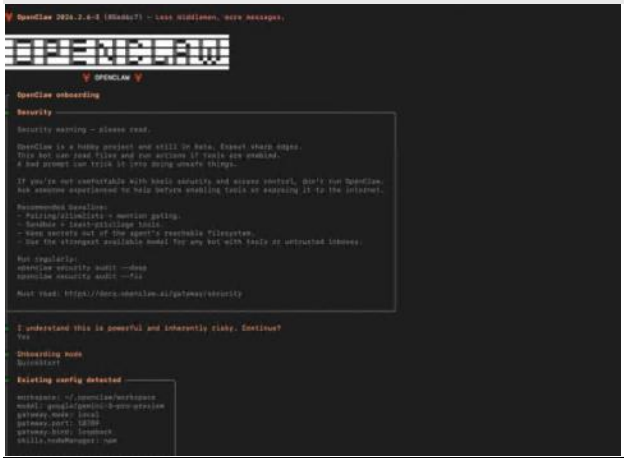
자료: Novita

그림5 Claude Cowork 화면: 사용자에게 익숙한 AI 채팅창



자료: Claude

그림6 비개발자에게는 낯선 OpenClaw 설치 과정 (접근성)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OpenClaw 안정성 문제

날짜	언론사	내용
2.19	The Verge	OpenClaw, 프롬포트 인젝션→원치않는 프로그램 설치
2.17	TechRadar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OpenClaw 에이전트를 표적삼음
2.17	WIRED	메타 등 IT 기업들 보안 우려로 OpenClaw 사용제한
2.16	Bleeping	인포스틸러가 OpenClaw 비밀번호 탈취 사례 확인
2.8	서울경제	카카오, 네이버, 당근 보안 우려로 OpenClaw 사용금지
2.5	Reuters	중국, AI 에이전트 OpenClaw 관련 보안 위험 경고

자료: 언론 보도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프론티어 AI 에이전트 경쟁 지각변동, 2Q26 중 경쟁 재부각 가능성에 주목

OpenClaw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는 2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OpenAI 합류 소식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OpenAI에 합류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 가장 최신 모델과 연구에 접근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드러냈다.

OpenAI는 스타인버거 합류로 에이전트의 UX와 워크플로우 설계 감각을 흡수한다는 기대가 크다. OpenAI의 기존 에이전트 모델인 Operator는 불편한 워크플로우의 한계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타개하며 윈윈할 수 있는 구도의 협업이다.

Anthropic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OpenClaw의 OpenAI 합류는 두 AI 프론티어의 에이전트 경쟁을 부추긴다. AI LLM 씬에서의 경험은, 프론티어 기업들의 경쟁적인 AI 모델 출시는 확산을 가속시킨다. 이들과 함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구글도 5월 I/O에서 AI 에이전틱 코딩과 최신 Gemini 모델 업데이트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Q26 중 프론티어 AI 에이전트 경쟁이 재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림7 Peter Steinberger가 개인 블로그에 밝힌 OpenAI 합류 소식 (2.14)

Peter Steinberger

Posts About

OpenClaw, OpenAI and the future

14 Feb, 2026 · 3 min read | Edit on GitHub

tl;dr: I'm joining OpenAI to work on bringing agents to everyone. OpenClaw will move to a foundation and stay open and indepen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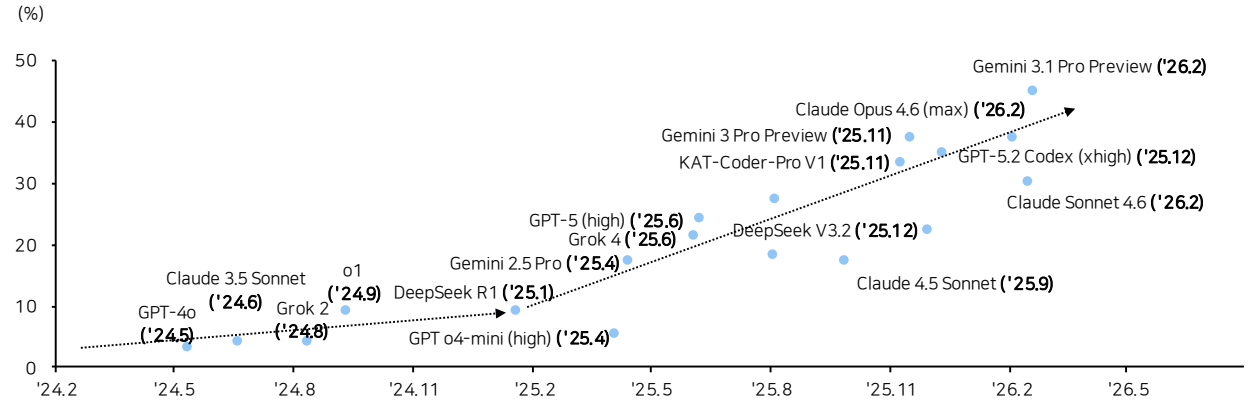
The last month was a whirlwind, never would I have expected that my playground project would create such waves. The internet got weird again, and it's been incredibly fun to see how my work inspired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ere's an endless array of possibilities that opened up for me, countless people trying to push me into various directions, giving me advice, asking how they can invest or what I will do. Saying it's overwhelming is an understatement.

When I started exploring AI, my goal was to have fun and inspire people. And here we are, the lobster is taking over the world. My next mission is to build an agent that even my mum can use. That'll need a much broader change, a lot more thought on how to do it safely, and access to the very latest models and research.

자료: Peter SteinBerger(steipete.me)

그림8 AI LLM HLE 스코어: LLM 경쟁 사례-프론티어 기업 사이에서는 경쟁 기업간 앞다투어 신모델 출시



자료: Artificial Analysis, Datacam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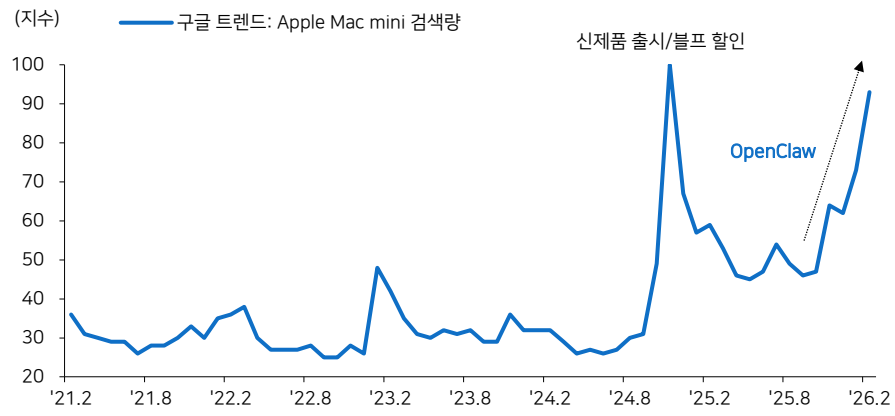
OpenClaw 이후 로컬 하드웨어 특이 동향: 메모리 중요성 재확인

앞서 Claude Cowork보다 OpenClaw를 조명한 이유는 이 트렌드가 하드웨어 수요에도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OpenClaw 등장 이후 함께 관심도가 커진 디바이스는 'Mac mini'다. 로컬 PC에서 OpenClaw를 구동하는데 물리적 로컬 서버 분리, 전력 효율성, MacOS 환경이 친화적이라는 점이 표면적 이유다.

그런데 Mac mini 트렌드 핵심은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의 효율성이다. Mac mini는 CPU/GPU/Neural Engine이 같은 통합 메모리(Unified Memory) 풀을 공유하기 때문에 PCIe(통신) 병목이 없다. 로컬 에이전트는 '큰 공유 메모리 풀'과 '복사 없는 접근'이 중요한데, Mac mini로 해당 환경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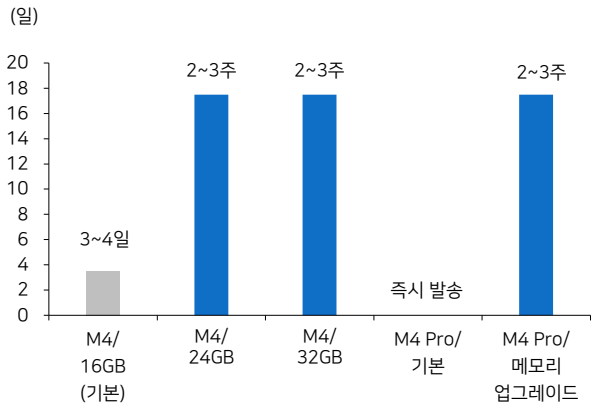
통신 속도와 함께 메모리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Mac mini 품귀 현상 가운데서도 고메모리 구성의 모델의 리드타임이 더 길다. mini보다 고성능의 Mac Studio 모델에서도 고메모리 모델일수록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9 **구글 트렌드: 미국 애플 Mac Mini 검색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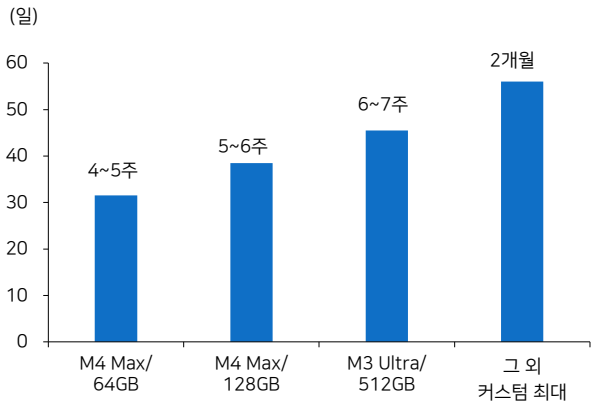
자료: Goog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내 Mac mini 모델별 리드타임 (칩/메모리)**



자료: TechRadar(2.17), BusinessInsider(2.18),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내 Mac Studio 모델별 리드타임 (칩/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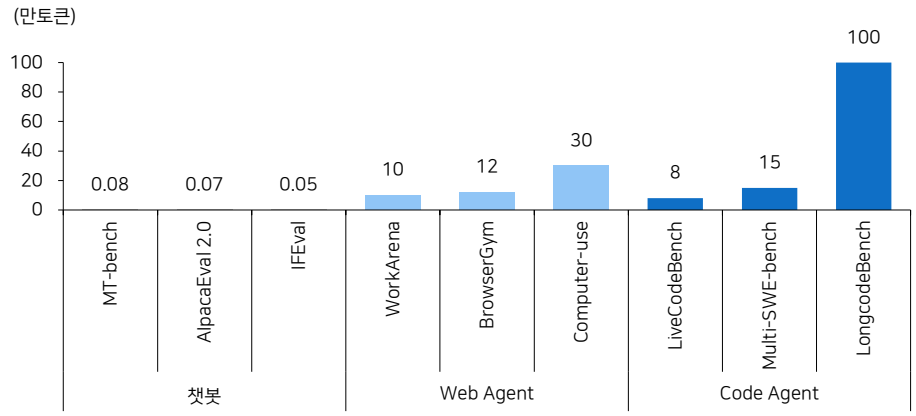
자료: TechRadar(2.17), 9to5Mac(2.13),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에이전트 확산: GPU가 아닌 '메모리 병목'이 AI 모델 연산 제한

위 현상은 AI 에이전트 연산에 메모리가 핵심임을 상기시킨다(After AI 시리즈 5: AI 진화론 3 종횡무진). Combating the Memory Walls: Optimization Pathways for Long-Context Agentic LLM Inference(Haoran Wu 외, University of Cambridge, 25.9.24)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추론에서는 GPU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메모리(대역폭/용량) 한계 때문에 AI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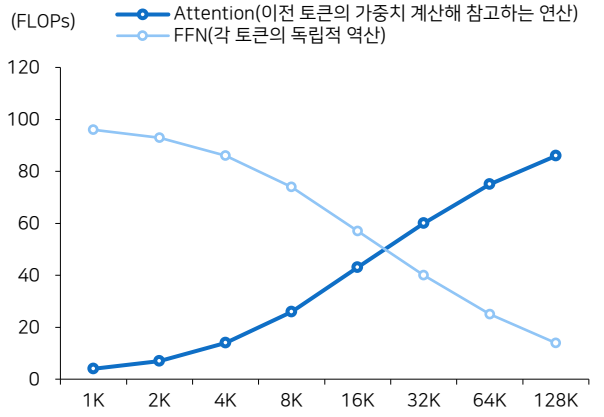
AI 챗봇 대비 AI 에이전트는 한 작업당 토큰 소모가 100배 이상으로 커진다(그림 12). 토큰 길이가 늘어나면, 모델 내부 연산에서 FFN(각 토큰의 독립연산) 계산 비중이 줄고 Attention(이전 토큰 가중치) 비중이 늘어난다(그림 13). 이 과정에서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질수록 KV 캐시 메모리(간단한 요약 정보)가 크게 증가해 어느 순간부터 모델 크기보다 KV 캐시가 메모리 사용량을 지배한다(그림 14). 이를 감당할 메모리가 확보되어야 AI 에이전트 성능이 온전히 발휘된다는 뜻이다.

그림12 AI 모델 토큰 사용량: 단순 AI 챗봇 vs AI 에이전트 – 100배 이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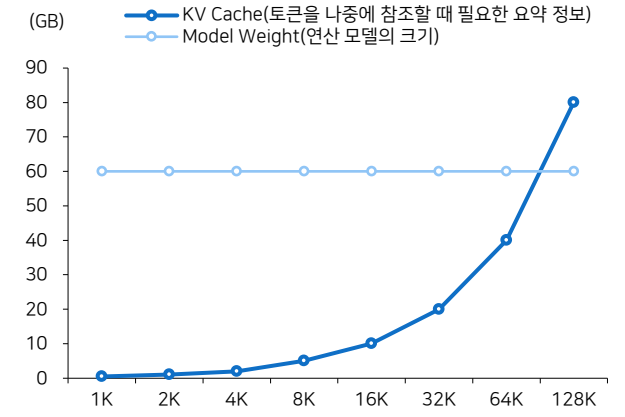
자료: Haoran Wu 외(2025), University of Cambridge, Imperial College Lond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컨텍스트가 길수록 참조해야 할 과거 토큰이 많아짐



주: x축은 컨텍스트 길이(토큰 수), 컨텍스트가 길수록 상호작용할 정보 증가
자료: Haoran Wu 외(2025),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컨텍스트가 길수록 메모리는 KV 캐시가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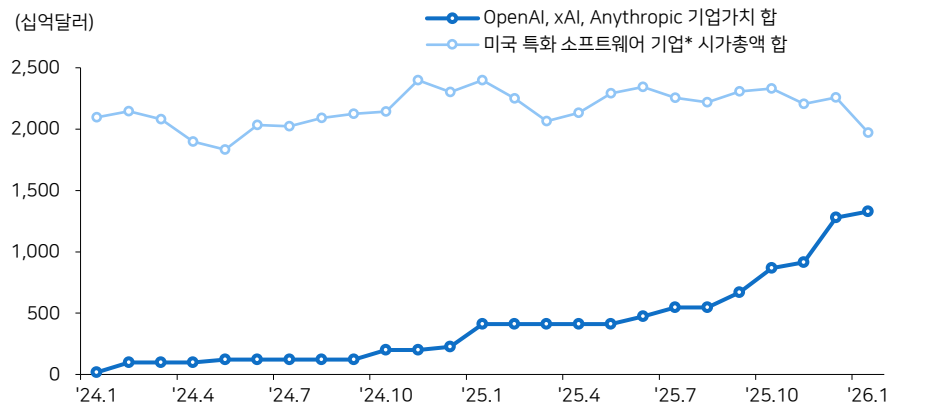
주: x축은 컨텍스트 길이(토큰 수), 컨텍스트가 길수록 KV 캐시 메모리 증가
자료: Haoran Wu 외(2025),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에이전트 투자 아이디어는 메모리로 회귀. 그 외 엔비디아, 알파벳 유력

위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AI 에이전트 붐 국면이 온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파르지만, 클라우드 사이클처럼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해야 하는 AI 인프라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성을 고려하기보다 하드웨어 선점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빠르면 2Q26부터 AI 에이전트 경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온다고 할 때, 가장 유력한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다시 메모리/데이터 스토리지로 회귀한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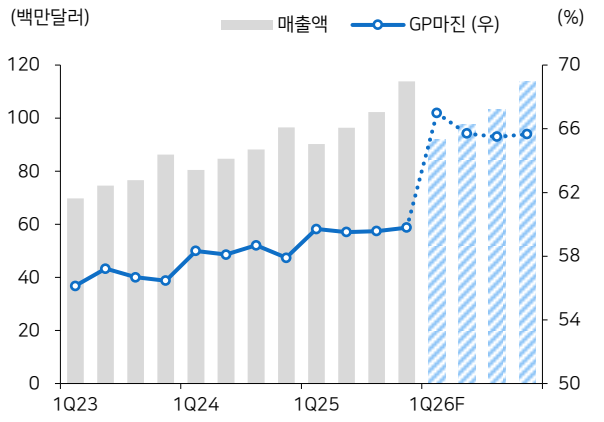
그 이유는 AI 에이전트 수익화가 가장 가시적인 기업들, AI 에이전트 프론티어가 OpenAI, Anthropic과 같은 비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식 시장 밖에서 계속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별개로 AI 에이전트 아이디어로 상장 종목에 투자한다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종목은 알파벳과 엔비디아다. 알파벳은 'Project Astra'라는 범용 AI 어시스턴트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개발에 앞서 있으며,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구축 인프라 모델 '네모트론'을 제공 중이다.

그림15 AI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과 비상장 AI 소프트웨어 기업 기업가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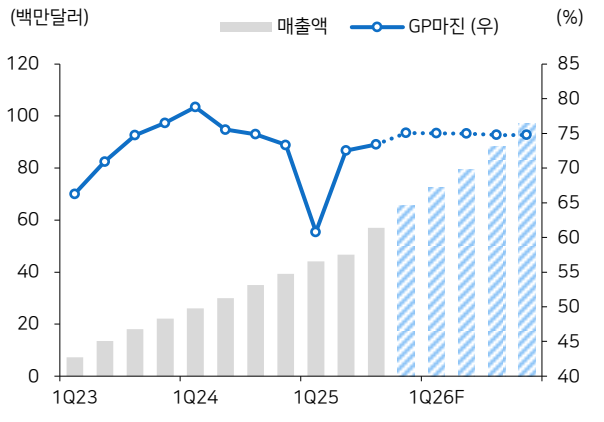
*주: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 IBM, 어도비, 액센추어, 앱러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25개사 시가총액의 합
자료: 언론 보도 종합,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알파벳 매출 및 GP마진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엔비디아 매출 및 GP 마진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